

산재예방유공 대통령상 수상



김영임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장, 한국산업간호협회 증경회장)

여름비가 내리던 지난 7월 2일.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코엑스 401호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제 40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 참석한 여러 인사들 가운데 참 반가운 분이 눈에 띄었다. 올해 산재예방유공자 대상자 중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김영임 한국산업간호협회 증경(曾經)회장님이 그 주인공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주셨다며 겸손하게 미소 짓는 회장님의 표정이 더욱 해맑고 화사하게 여겨졌다.

제 5대, 6대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 역임 중 산업보건에 대한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산업간호사 직무개발 및 보건관리자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대통령상이기에 더욱 뜻 깊고 영예롭게 생각되어졌다. 김영임 증경회장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박사과정을 이수하시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장을 역임하셨으며 본 협회 창립 초창기부터 산업간호의 길을 구축해온 산업 간호인이기도 하다. 현재는 한국산업간호학회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장에 재임 중이다.

세련되고 도회적인 첫 인상의 이미지, 쉽게 근접할 수 없는 범상치 않은 분위기... 그러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진취적이셨다. 진심어린 격려와 기대의 눈빛을 아끼지 않고 여유 있게 기다리며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서 사람을 품었던 김영임 증경회장님은 회장 재임시절 산업간호사들의 권익보장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역량을 다해 주셨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산업간호사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업무표준화는 물론 새로운 지식의 보급과 직무향상을 위해 학술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크게 변화된 사업장의 각종 유해요인과 직업병 및 산재발생 양상에 대처하고 건강유지 및 증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통합적 직무지침서의 발간 필요성이 대두되자, 3년여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수많은 논의과정을 통해 「개정 산업간호 직무지침」개정발간을 완수하였다.

재임 중 김영임 증경회장님은 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많은 열정을 쏟았다. 최근에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의 대부분은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근로자의 생활습관이나 생활양식의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주력하였다. 2004년 「전 국민건강증진체계 확립을 위한 학생, 근로자, 여성, 농어민 등 전 국민대상 종합적 보건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사업 결과를 기초하여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10)과 노동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총괄·조정하는 방안을 제시· 국민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의 종합적 보건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이어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건소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건강증진 추진전략·유기적인 사업장 건강증진사업 추진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해 「산업간호우수사례경연대회」를 산업안전보건건강조주간에 개최하여 전국의 업종별, 규모별로 우수한 산업간호 사례를 산업보건 종사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사업장 보건인 금연지도자 교육」 참여는 보건관리자의 산업보건 역량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사업장 보건인 금연지도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규모, 중·소규모사업장을 담당하는 산업간호사에게 양성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범 사업장 내에서 금연 확산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시키고 금연홍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인 보건소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사업을 계기로 올해에도 「사업장 보건인 금연지도자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시한 '유기용제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개발 및 사업장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유기용제 중독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를 초기단계부터 감시하여 유기용제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즉, 기존의 직업병 감시체계는 근로자

가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야 만 직업병을 발견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으나, 사업장과 연계된 유기용제 감시체계는 산업간호사로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한 후에 유기용제 취급근로자 특성별 DB를 구축하고 산업간호사가 사업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 건강보호를 담당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아울러 특성별, 유해인자별 건강상태에 따라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산업간호사가 활용할 수 있는 핸드북용 건강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한국산업간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기용제 건강관리자료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였다.

김영임 증경회장은 최근 산업인구의 중·고령화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이 많고 전임 보건관리자가 없는 중·소규모사업장의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건관리기술지원 국고대행사업과 뇌·심혈관질환예방용역사업을 확고히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취약근로 계층인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산재예방 그리고 근로자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였다. 이는 산업간호사가 개발된 교육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중·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의 기초질환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보건관리사업으로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새로운 형식의 보건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으로 일거리 창출을 유도하였고 중·소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보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수 있었다. 즉 정부 CLEAN사업의 일환인 보건관리기술지원 국고대행사업과 뇌·심혈관질환예방용역사업 참여로 전문 인력인 미취업 산업간호사 328명을 고용 일거리 창출을 유도하였고, 근로자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 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사업장,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게 보건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 관련단체 및 병원기관, 보건소 등의 지역산업보건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보건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김영임 증경회장님의 노력 중의 하나는 산업간호사가 산업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수행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무수행,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수행능력 함양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2005년 3편, 2006년 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 산업보건관련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이는 산업보건의 홍보와 역할 증진을 도모하며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 진흥의 초석이 되었다.

김영임 증경회장님의 재임시절동안 협회에 기여한 공로를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

러 가지 고비도 많고 역경도 많았던 협회에서 언제나 흔들림 없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신 것은 분명하다. 합리적이고 명석하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전국의 회원들과 직원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요, 실무자로 산업보건기관과 노·사·정계에 대하여 입장을 대변 해주셨던 김영임 증경회장님의 업적을 당대에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겠지만, 분명히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지를 위해서, 산업간호의 기술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산업간호 업무관련 제도개선을 위해서,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부단한 노력에 대해서 산재예방유공 대통령상 수상하신 김영임 증경회장님께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